강할수록 맛있고 신나는 밥 먹기

(민14:1~19)

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6.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강할수록 맛있고 신나는 밥 먹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강할수록 맛있고 신나는 밥 먹기'

밥을 먹는데 강할수록 맛있고 강할수록 신나는 밥 먹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도 너무나 극적이고 숨 가쁜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바닷가와 산에 굳건한 성을 짓고 살고 있으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선진문명을 이루고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들이 맺히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들과 붙었다가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고 말 것이라'는 열 명의 정탐꾼의

정탐을 듣고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어졌다고 합니다. '엎드러졌다'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분위기와 의미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55세에 은퇴를 해서 은퇴할 때에 받은 모든 퇴직금과 푼푼히 모아둔 적금을 다 깨고, 친척들에게서 투자의 명목으로 돈을 좀 끌어당겨서 한 10억을 만들어서 그 돈을 하나의 비즈니스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기대를 갖고 꿈을 갖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한 것이 알려집니다. 이때의 마음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마음입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고 모든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서 출애굽의 이유가 되는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250만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10억을 투자해서 전 재산을 사기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람의 심정으로 아론과 모세가 고꾸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일이 다 끝장난다.'는 위기감으로 이들의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때에 어제 이야기한 갈렙과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나서면서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의 먹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밥으로 표현되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빵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 명의 정탐꾼처럼 가나안 땅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철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자신들이 '오합지졸이고 메뚜기 같다'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도 알지만 이렇게 호기어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행렬 맨 앞에 법궤가 앞장서고 있다'는 이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허세와 같이 느껴지는 말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법궤가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법궤는 말씀의 돌판을 담은 궤입니다. '말씀의 돌판'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임재 하신다.'는 것이고 '앞장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고 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맨 앞에서 간다.'는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제일 먼저 접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원래부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고 이 사실 하나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치시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먹이라'라는 말이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닐 바에야 하나님께서 먼저 접촉하셔서 그들을 상대하셔서 이기실 것이라면 그 상대편 가나안 족속이 장대 같은 거인으로 크면 클수록 신나는 일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승리가 결정되었다면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한다.'는 말은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타락했던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실 것이 정해졌다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약한 자들이 사는 땅,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말하자면 어차피 이길 것인데 여러분은 아프리카를 점령하겠습니까? 미국을 점령하겠습니까? 유럽을 점령하겠습니까? 이길 것이 분명하다면 왜 아프리카를 점령하겠습니까?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을 점령하지요. 아프리카는 나중에 주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아도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그들의 발전된 과학기술이나 유럽에 유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길 것이 분명하다면 이왕이면 발전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을 갖지요. 그런데 미국과 싸우려고 하는데 미국을 보고 떨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나와 싸우기 전에 먼저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북과의 관계에서도 동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지만, 계산적으로 따져서 뭘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통일을 해야 하지만 순전히 전쟁과 전리품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는 가능하면 강하고 문명이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우리의 적이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땅에 엎드러질 정도로 좌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된 이유는 '법궤가 앞서간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일본하고 전쟁이 나도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전쟁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 타결이 됐다고 새벽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벌 떠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기려고 하시면 우리가 말려야 할 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상대는 없고 이왕이면 강한 나라와 싸워주셔야 좋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먹는 것이 좋지 왜 아프리카를 먹습니까? 선민일 경우에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를 받으면 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밥 먹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먹이'이고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여호수아가 한 말처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극복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비유로 신약성경에서도 의미가 통하려면, 이 젖과 꿀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흐르는 삶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북에서 사는 사람의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삶이 전개되고 있든지 가나안 땅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프리카에

서도 가나안 땅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 의미가 통할 수가 없고 왜곡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다 죽고 순교하는 판에 가나안 땅이 조건과 환경을 말하는 것이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의미의 차원에서 가나안 땅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극복되어야 될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밥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므로 그 극복되어야 될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맛있고 신나게 됩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다면 걱정이 생깁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돈이 없다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이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돈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가나안 족속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내게 돈을 주셔야 비로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의 비유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신약성경에서도 의미 있게 해석하자면 돈이 없으면 걱정이 생깁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돈 없는 상황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것은 돈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기쁠 수 없지만, 선민은 돈이 없어도 기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건강이 안 좋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가난하면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돈과 건강이 있게 해달라고,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돈에 진 것이고 건강에 진 것이고 이 세상에 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때에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1등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노예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일 때 '돈이 없는 한 울어요. 돈이 없는 한 슬퍼요. 돈이 없는 한 걱정해요.'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울고 슬퍼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시 돈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는데 '멸시한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뜻이고 '업신여긴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의 행렬 앞에 가는 것'은 '인격적이고 생각과 뜻과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겨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아주 충격적으로 일이 잘못 되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우리가 확 먹힙니다.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세상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울고 불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도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가나안을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생각과 그래야만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깔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심령에는 가나안이 임합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순교 현장이라는 삶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가나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에 타 죽고 사자 밥이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가나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낡은 옷을 벗거나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것인데 순교는커녕 일이 조금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이 일이 안 되는 한 이 일이 가나안 족속이 되어서 이 상황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가나안 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가?'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붙드는 데 왜 망하게 하시냐고 하면서 붙듭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에 왜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데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는 상황일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받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나안을 내 것으로 갖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그 때는 이미 있는 돈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바쳐집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나안이 왔어요. 그러면 둘째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할 찌라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할 때에 교만할까 염려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게 될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법궤가 앞서야 하고 말씀이 앞서야 합니

다.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인데 먼저 들어야 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든 말씀이 주님에게로 모아지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승진문제가 생겨서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때에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진을 못해도 가나안을 주실 수 있고 복지인 에덴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진에 매달린다.'는 것은 이미 '승진에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오늘 본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앞세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승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 '너는 죽었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 '너는 돈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앞세워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마음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닿기만 하면 가나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가나안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조차도 가나안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가나안을 주시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진짜로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는 것인데 말씀이신 십자가 사건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돈이 없다'고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나는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의 형편보다도 가나안의 물정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릴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죽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이 상황을 내버려두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나안을 주시고, 가나안 족속은 당신의 뜻대로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그 문제가 가나안 족속임을 알아야 하고 가나안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나안이라는 형편에 대해서 죽고 등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고 이 세상의 문제는 당신 뜻대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크면 클수록, 근심거리가 크면 클수록, 나를 슬프게 하는 꺼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밥은 맛있고 신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가나안을 빼앗아 가려는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맛있고 신나는 밥 먹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될 정도로 내 마음에 붙어있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 상황과는 무관한 승리를 주셔서 가나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